

“폭염 등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시민 보호 총력”

광주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활동 전개…기관·단체와 협력

온열질환 예방 물품 나눔…폭염 취약계층 긴급 안부살핌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자원봉사센터(센터장 류미수)는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본격화함에 따라 ‘폭염 대응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광주센터는 앞서 지난달 말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장 긴급간담회를 열고, 정부 및 지자체 재난대응체계와 연계해 지역내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는 등 폭염 대응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인세대, 쪽방 주민, 야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 및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센터 간 협력과 자원 배분을 조정하는 권역 단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폭염특보와 현장 상황에 따라 활동시간을 조정하거나 야외활동을 중단하는 등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기준도 철저히 적용하기로 했다.

광주센터는 무더위가 본격 시작된 지난달 이후 홀로사는 어르신 답죽나눔 행사와 시민의숲 물놀이장 장애인 개방행사 햄버거 나눔, 광산구 어룡동 안전지도 만들기 현장활동 등 여름철 재

난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야외노동자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품 나눔활동과 폭염 취약계층 긴급 안부살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오는 7일에는 자치구센터 재난담당자 회의를 열고 센터별 폭염 대응 자원봉사활동 추진상황과 태풍·폭우 등 여름철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류미수 광주자원봉사센터장은 “폭염·폭우 등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안전까지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센터는 무더위가 본격 시작된 지난달 이후 홀로사는 어르신 답죽나눔 행사 등 여름철 재난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전남광주 농기센터, 품목별 농업기술 전문교육

논공·고추·딸기 등 관리 전수…사전신청 없이 현장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업인의 전문 재배기술 향상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다음달까지 ‘2026년 품목기술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품목기술 전문교육은 지난달 7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총 22회 실시하며 논공, 배, 고추, 딸기, 토마토, 감, 블루베리, 양봉 등 8개 품목별 핵심 재배기술과 생육단계별 관리 요령을 다룬다.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현장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www.gwangju.go.kr/agri/) 교육마당의



교육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품목기술 전문교육이 농가의 재배 역량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에서 최근 서울 국회소통관 앞 광장에서 ‘장성 여름 과일 판촉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청

장성 여름 과일, 국회서 인기몰이

서울 국회소통관 앞 광장서 ‘과일 판촉행사’ 이개호 국회의원 주축…하루 매출 2400만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에서 재배된 여름 과일이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 등의 매력으로 서울에서도 뜨거운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서울 국회소통관 앞 광장에서 ‘장성 여름 과일 판촉행사’를 열었다.

이개호 국회의원이 주축하고 진원농협, 전남농협연합회사립대, 재경장성군민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장성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도권 판

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선한 산지 직송 농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10~2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얻었다. 하루 매출로 약 2400만원을 기록했을 정도로 호응이 컸다.

이날의 주인공은 단연 ‘장성산 차돌복숭아’였다.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가 특징인 장성 차돌복숭아는 지역을 대표하는 여름 과일

이다.

농특산물 판매와 함께 ‘장성군 공식 온라인 쇼핑몰 장성몰’과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진행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산 농산물이 국회 관계자와 서울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직거래 장터를 꾸준히 확대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희망 직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직업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고등 학교와의 협력을 강화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조선이공대, 전남공고 학생 맞춤 진로설계 지원

직업심리검사·AI 잡케어 활용해 진로 로드맵 제시

조선이공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7월 28~29일 전남공고 드론공간정보과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객관적인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 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취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에는 공공 고용포털 ‘고용24’를 활용한 청소년 직업흥미검사와 직업가치관검사가 진행됐다. 학생들은 검사를 통해 자신의 직업적 흥미와 가치관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진로를 탐색했다.

이어 인공지능(AI) 기반 진로·취업지원 서비스인 ‘잡케어(Job Care)’를 활용해 희망 직업의 주

요 직무와 요구 역량, 관련 자격증, 취업 준비 절차 등을 확인하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서(IAP)를 작성하는 실습도 실시했다.

둘째 날에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전문 컨설턴트 4명이 참여해 학생별 검사 결과와 IAP를 토대로 1대1 맞춤형 심층 상담을 진행했다.

컨설턴트들은 희망 직무와 관심 분야의 연계성을 점검하고, 진로가 구체화된 학생들에게는 상급 학교 진학과 자격증 취득 등 단계별 진로 로드맵을 제시했다.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는 전공과 관심 분야를 연계한 다양한 직업군을 안내하며 맞춤형 진로 탐색을 지원했다.

이음재 조선이공대 총장은 “진로설계는 단순하

게시판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일자정양림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

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속진강관리, 노후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품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숙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범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운세 (음력 6월 23일)

48년생 파문을 던지는 이가 있을 것
60년생 마음만 있지 취할 수 없다
72년생 머리사려려 원형 계획없다면 가지마라
84년생 자존심 싸움을 하지 말 것
96년생 기다리면 성공의 길이 보인다
51년생 대처를 충분히 하자
63년생 아직은 실행의 시기가 아니다
75년생 문서,계약을 조심
87년생 여행 도중에 마음을 바꾸지 마라
99년생 아이디어가 호황을 맞게 될 것
54년생 자금 유통이 쉽지 않는다
66년생 친절을 배우는 사람을 조심
78년생 효과를 보기에겐 아직 이른 마당
90년생 갑작스런 만남은 오래가지 않는다
57년생 빨리 포기할수록 생사 적
69년생 성공적으로 성사시킬 수 있다
81년생 이제는 더 이상 진전이 없다
93년생 클레임이 결릴 가능성이 있다

49년생 상대를 배려해 주는 것이 이롭다
61년생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천양지차 된다
73년생 중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자
85년생 되는 일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97년생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
52년생 돈소문이 사실로 변할 수 있다
64년생 대안을 마련하자
76년생 끝까지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88년생 배신이나 사기를 당하게 되니 주의
55년생 외부적인 요건까지 두루 갖춰야 할 것
67년생 대안을 마련하자
79년생 늘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자
91년생 말 싸움을 하지 말 것
58년생 덕이 멀리 알려져 명성과 富 얻게 될 것
70년생 공허한 마음은 채워지질 않는다
82년생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성사의 지름길
94년생 일이 영길 수 있으니 기다려야 한다

50년생 항상 조심성 있게 나아가자
62년생 먼곳에 가지마라 곤란이 올 것
74년생 부부 불화의 짐조가 보이니 참자
86년생 구체적이어야만 실효성이 있다
98년생 유혹이 가더라도 모험에 손 대지 말라
53년생 지인과 오래 풀려 화합 도모하게 될 것
65년생 힘의 기원이 생길 것
77년생 헛소문 이겨내는 지혜 필요한 시기
89년생 일에 얽혀 바쁘지만 실속이 없을 것
56년생 손해 보게 되니 너무 앞서 가지 말라
68년생 다들으론 중대한 일을 놓치게 된다
80년생 고난 이겨내는 지혜 필요한 시기
92년생 사랑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 것
59년생 얻는 것도 때가 있는 법
71년생 돈소문이 사실로 변할 수 있다
83년생 운 왕성에 모험성 있는 일 성공 할 것
95년생 돌파구가 보인다